



은혜로 QT

5월 5일.수요일.

묵상말씀. 시편 94편 12절 - 15절.

12.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13.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14.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15.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좇으리로다

묵상제목.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복 받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발견합니다. 시인은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참된 복이 됩니다. 이는 악인들과 구분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악인들은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거나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질책과 훈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교훈과 가르침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혹독하고 쓰라리기도 하지만 분명 그 가르침에는 회복을 위한 힘과 성장에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답을 묻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당면한 문제가 크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스스로 답하고 결정내리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얻고자 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교훈으로 우리는 유혹을 비껴가며,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되며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 분노가 있을 때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허락된 기쁨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한줄 기도.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교훈과 법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삶의 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